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⑨ 불타선사(佛陀禪師) · 석승조(釋僧稠)



▶ 한줄 요약
남북조시기에 수많은 고승들이 출현하여 활약했다. 이 시기 북방 '습선'의 가장 대표적인 고승은 불타선사와 승조이다.

# 본격적인 중국선 토대 제공한 불타 · 승조

중국은 북방 소수민족들의 침공으로 서진(西晋)이 망하고, 남하하여 지금의 남경(南京)에 동진(東晋)을 세웠고, 북방에는 16국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후 남방은 송(宋) · 제(齊) · 양(梁) · 진(陳)의 왕조들이 명멸하여 이를 남조(南朝)라 칭하고, 북방에는 북위(北魏)가 16국을 통일하였지만, 동위(東魏) · 북제(北齊)로 분열되고, 그를 서위(西魏) · 북주(北周)가 계승하게 되는데, 이를 북조(北朝)라고 칭하며, 이 시기를 통칭하여 남북조(南北朝)라고 한다. 이 남북조는 중국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 시기의 불교는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대세를 이루어 시대사조(時代思潮)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남북조시기에 이루어진 불교적 담론은 이후의 중국불교에서 논해지는 거의 모든 주제와 내용이 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이후의 불교는 모두 이 시기에 제시된 사상들의 정리와 종합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남조와 북조의 불교는 명확하게 차별이 존재한다. 우선, 정치권력과 불교의 관계로부터 보자면, 남조는 여산 혜원(慧遠)의 영향으로 정교(政敎)분리를 유지하였지만, 북방은 16국을 통일한 북위로부터 '승관제도(僧官制度)'를 실시하여 불교를 황권 아래 제도적으로 복속시켰다. 이후의 중국왕조는 모두 북방계열에 속하기 때문인지 수(隋) · 당(唐)을 비롯하여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철저하게 황권에 복속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흔히 '삼무일종(三武一宗)'의 '폐불(廢佛)'이 모두 북방에서 발생하는데, 정치권력에 귀속된 불교가 통치자의 성향에 따라 처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남조와 북조의 정교관계는 불교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교가 분리된 남조에서는 자유롭게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는 것에 비하여 북조에서는 황제의 명에 따라 하나의 경전 혹은 하나의 교의(敎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대에 종파(宗派)가 출현하고, 이른바 하나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을 중시하는 학풍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풍에 따라서 "남의북선(南義北禪)"이라고 하여 남방은 의리(義理)를, 북방은 선정(禪定)을 중시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남북의 사상적 경향에 따라 이른바 '습선(習禪)'은 주로 북방에서 더욱 많이 배출되었다. 〈고승전〉과 〈속고승전〉의 여러 승려들과 '습선편'에 보이는 많은 습선자들 가운데 남방에서 활동한 이도 있지만 대부분 북방에 속해 있으며, 이들의 전기로부터 대부분 선수학(禪數學)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남북조시기에 수많은 고승들이 출현하여 활약하였지만, 이 시기에 북방의 '습선'의 가장 대표적인 불타선사(佛陀禪師, ?~?)와 승조(僧稠, 480~560)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의 사상은 이후 본격적인 중국선의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문제는 칙명을 내려 소실산(小室山)에 불타선사를 위해 '소림사'를 지어 불타선사를 머물게 했다.

불타선사는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그에 따르면 본래 천축국(天竺國) 출신이며, 서역의 제국을 유행하다가 중국에 들어와서 북위의 도읍 항안(恒安, 현 山西省 大同)에 이르러 효문제(孝文帝, 471~499)를 만났는데, 황제는 그를 존경하여, "따로 선림(禪林)을 짓고, 돌을 뚫어 감실(龕室)을 만들었으며, 무리를 모아 정념(定念)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후 북위의 수도를 낙양(洛陽)으로 옮기면서 사찰을 마련해 주석하게 하였으나 산림에 머물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숭산(嵩山)에 은둔하였다. 그에 따라 도읍을 옮긴 2년 후(太和 20年, 496)에 효문제는 칙명을 내려 소실산(小室山)에 오직 불타선사만을 위한 선사를 수조(修造)하였는데, 이 사찰은 소실산의 산림에 있기 때문에 '소림사(少林寺)'라고 칭하였다. 불타선사는 사찰이 완성된 후에 "이 소림정사는 각별하게 신령(神靈)의 지킴이 있으므로, 한 번 세워진 후, 끝까지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 "각지의 사문들이 명성을 듣고 모여든 자가 항상 수백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림사는 불타선사를 위해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타선사의 선사상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한 제자인 도방(道房)에게 사문 승조(僧稠)를 제도하여 정업(定業)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구절로부터 주로 선정(禪定)과 관련된 법을 펼쳤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승조의 전기에는 도방으로부터 '지관(止觀)'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이 불타선사를 계승하여 소림사의 2대 사주(寺主)가 된 이가 바로 승조이다.

**남북조시대 불교, 학문 · 신앙 대세**
**효문제, 불타 위해 '소림사' 불사해**
**불타, 禪定관련 법 편 것으로 짐작**

**불타 이어 소림사 2대 寺主된 승조**
**열반경 '성행품' 사념처 의지해 수행**

〈속고승전〉에 실린 승조의 전기에 따르면, 속성이 손(孫)씨이며 창려(昌黎) 출신으로, 어려서 세속의 경전을 부지런히 배웠고,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태학박사(太學博士)에 등용되었지만, 우연히 불법을 만나자 세간의 번거로움을 싫어하게 되어 28세에 경명사(景明寺)의 승식(僧寔)법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그 후에 불타선사의 제자인 도방에게서 '지관'을 받아 정주(定州) 가어산(嘉魚山)에서 열심히 수행하였지만 전혀 얻는 바가 없었다. 그에 따라 선정 수행을 포기하고 〈열반경(涅槃經)〉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어떤 승려를 만나 결코 선정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계연(繫緣)하면, 구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권고에 따라 수행하여 드디어 선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5년 동안 항상 〈열반경〉의 '성행품(聖行品)'에서 설하는 사념처(四念處)를 의지하여 수행하였다.

그 후에 조주(趙州) 장홍산(漳洪山) 도명(道明)선사에게서 '십육특승법(十六特勝法)'을 사사받아 오래도록 깊이 연구였으며, 음식을 절제하며 수행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십육특승법'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성실론(成實論)〉에서 나타나는 선정에 드는 열여섯 단계의 관법이라고 하겠다. 승조는 이를 오랫동안 수습하여 스스로 깨달아 얻은 바가 있어, 소림사로 가 불타선사를 찹알하여 자기가 증득한 바를 말하였더니, 불타선사는 "내가 총령(蔥嶺)을 넘어서 동쪽으로 와서 보니, 선학(禪學)이 가장 수승하였는데, 그대가 바로 그 사람이도다"고 인정받아 바로 심요(深要)를 전수받았다.

이후 승조는 소림사 근처의 숭악사(崇岳寺)로 가서 머물다가 왕옥산(王屋山)을 거쳐 마두산(馬頭山)에서 주석하였는데, 크게 명성을 떨쳐 북위의 효명제(孝明帝)가 세 차례 조서를 보내 청하자 "넓은 천하가 왕의 영토가 아닌 것이 없는데, 산에서 도를 닦아 대통(大通)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답하자 효명제는 많은 공물을 보내면서 허락하였다. 그러나 북제의 문선제(文宣帝)가 천보(天保) 2년(551)에 칙명을 내려 청하자 승조는 마지못해 산에서 내려가자 문선제는 친히 궁전으로 모셨다고 한다. 40일 동안 궁전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베풀자 문선제는 선정을 얻었고, 외호(外護)의 시주를 발원했다고 한다. 승조는 다시 머물던 산으로 돌아가자 문선제는 천보 3년(552) 업도(鄴都) 근처에 운문사(雲門寺)를 창건하여 승조를 주석하게 하였다. 그 후에 문선제는 매달 조서를 보내 국가의 대소사에 자문을 청했으며, 수시로 방문하였다. 황문시랑(黃門侍郞) 이장(李獎)이 여러 선덕들과 함께 선정의 요지를 찬술해줄 것을 청하자 승조는 〈지관법(止觀法)〉 2권을 찬술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이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고 하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승조는 건명(乾明) 원년(560) 4월 13일 진시(辰時)에 아무런 병환 없이 단좌(端坐)하여 산사에서 입적하였는데, 세수 81세였고, 법랍은 50년이었다.

승조의 선사상은 그의 저술이 유실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전기에 보이는 "'십육특승법'을 받아서 오래도록 깊이 연구하였다. 음식을 절제하여서 마음을 몰아쳤는데, 90일 동안 줄곧 한 끼만을 먹는데, 오직 쌀 4두(斗)만을 먹었다. 어떤 때는 익지 않은 음식을 먹고서, 마음을 거두어[攝心] 입정(入定)하였다."는 내용은 그대로 안세고(安世高) 계통의 '선수학(禪數學)'에서 강조하는 '수식관(數息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른바 '십육특승법'은 '지식입(知息入)'과 '지식출(知息出)'로부터 '관기사(觀棄捨)'에 이르는 16가지 관법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열반경〉의 '성행품'에서 설하는 '사념처'를 의지하였다."라는 구절로부터 '선수학'과는 다르게 대승경전의 선관(禪觀)을 운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속고승전〉을 찬술한 도선은 승조와 비슷한 시기에 북방에서 유행한 달마(達摩)의 선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두 종(宗)을 살펴보면, 곧 두 바퀴 축을 타고 달리는 것이다. 승조는 염처(念處)를 품었으며, 청범(淸範)하여 존경할만하다. 달마의 허종(虛宗)은 현지(玄旨)가 그윽하고 깊다. 존경할 만하다는 것은 곧 상황이 쉽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윽하고 깊다는 것은 곧 이성(理性)이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승조의 선법은 '사념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달마의 선법은 '허종', 즉 '반야공관(般若空觀)'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마도 도선의 안목에는 승조와 달마의 차별을 소승선과 대승선의 차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도선은 승조의 정학이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불법이지만, 달마의 허종은 일반적인 '이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선은 비록 "중원(中原)의 정원(定苑: 定學)에 강령(綱領)을 세우고 전개하게 한" 공로를 인정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으로 흘러와, 여기에서 성하였구나!"라고 하여 승조를 높이 평가하지만, 행간에는 달마의 선법을 더욱 수승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타선사와 승조가 중국선에 대하여 수립한 공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안세고 계통의 선수학을 대승 선관과 결합하여 전개한 승조의 선사상은 이후 '불성'과 '반야'의 화회(和會)로 전환되는 중국선의 과도기적 환절(環節)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